

# 튀르키예 규모 '7.8' 강진... 최소 195명 사망

### 남동부 발생, 진앙지에서 33km 떨어져... 희생자 더 늘듯 새벽에 우지직 피해 커... 주요 단층선에 있어 지진 잦아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에서 6일(현지 시간) 새벽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최소 195명이 사망했다고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가운데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튀르키예 재난응급관리청은 튀르키예 7개 주에서 최소 76명이 사망하고 44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리아 관영 언론은 보전부를 인용해 시리아 정부 점령 지역에서 99명이 사망하고 최소 334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시리아 반군 점령 지역에서는 2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 여러 도시의 구조대원과 주민들은 부서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구조작업을 계속 중이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서 약 90km 떨어진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시 북쪽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17분 경 가지안테프에서 약 33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지진의 진원 깊이는 18km였다. 첫 지진 발생 약 10분 후에 규모 6.7의 강한 여진을 포함해 최소 6번의 여진이 있었다.

진앙과 인접한 터키의 말라티야 주에서 최소 130개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홀루시 사힌 주지사는 말했다. 터키의 디야르바키르에서는 최소 15채의 건물이 무너졌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서 "지진 발생 지역에 수색 및 구조 팀이 즉시 파견됐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최소한의 피해로 이 재난을 함께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솔레이만 소일루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피해가 된 건물 아래에 갇힌 사람들을 끌어내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진은 약 400만 명이 거주하는 시리아 반군 점령 지역도 강타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와 중부 도시 하마에서 일부 건물이 무너졌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95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진 여파가 미친 시리아 중부 도시 하마의 무너진 건물에서 부상자를 이송하는 구조대원들.

고, 다마스쿠스에서는 건물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거리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의사인 무헤브 카도르는 "마을에서 최소 11명이 사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잔해에 파묻혔다"면서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를까봐 두렵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시리아 반군인 시리아 시민 방위군은 자

신들이 장악한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건물 전체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잔해 아래에 갇혔다면서 이 지역의 상황을 '재앙'이라고 묘사했다.

이와 관련해 암자드 라스 시리아 미국의 학협회장은 "응급실이 부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레바논 주민들은 건물이 약 40초 동안

흔들렸다고 전했고, 베이루트의 많은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 나가거나 차를 몰고 건물에서 멀어졌다.

튀르키예는 주요 단층선 위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1999년에 튀르키예 북서부를 강타한 강진으로 약 1만8000명이 사망한 바 있다.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 글로벌 클래스

### 비욘세 32개 트로피 그라미 최다 신기록

미국의 슈퍼 스타 비욘세가 5일(현지 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65회 그라미 어워드에서 그라미 역사상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6일 BBC에 따르면 비욘세는 2023년 그라미 어워드에서 4개의 상을 수상하며 31번의 수상 기록으로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던 헝가리 출신 지휘자 고(故) 게오르크 솔티를 제치고 새 역사를 썼다.

그는 '브레이크 마이 소울'로 최우수 댄스 레코딩을, '플라스틱 오프 더 소파'로 최우수 R&B 여성 보컬 퍼포먼스상을, '컷트 아웃 베스트 R&B 송' 위너상을 받고 '베스트 댄스 일렉트로닉 뮤직 앨범'을 수상해 총 32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한편 같은 날 그라미 어워드에서 미국 여배우 비올라 데이비스는 18번째 EGOT(미국 4대 연예대상인 에미그라미오스카토니상) 수상자로 기록됐다.

데이비스는 자서전 '파인딩 미(Finding Me)'로 2023년 그라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오디오북을 수상하며 미국 4대 연예대상에서 모두 수상하는 기록을 완성했다. 데이비스는 "여섯 살짜리 비올라를 기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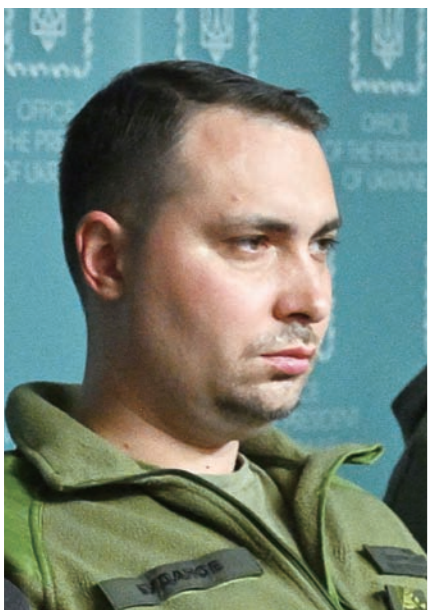
데이비스는 2016년 영화 '웬스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고, 2014년 TV 드라마 '범죄의 재구성'으로 에미상 여우주연상을, 2001년 연극 '킹 헤들리 2세'와 2010년 연극 '웬스'로 두 개의 토니상을 수상했다.

박어진 기자 parkes@skyedaily.com



2023년 '제65회 그라미 어워드'에서 미국 배우 비올라 데이비스가 EGOT가 됐다. 티빙=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에 30대 군정보국 수장 임명 예정



국방장관에 내정된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 키이우 AFP=연합뉴스

### 레즈니코우 현 장관, 군 식자재 납품 비리 의혹 시달려

우크라이나가 30대 군정보국 수장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집권 여당 '국민의 종'의 다비드 아라카미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전쟁은 인사 정책의 변화를 불러온다"며 "국방부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무력 기관'은 전시에 정치인이 아니라 국방 또는 안보에 대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라카미아 원내대표에 따르면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장관(56)은 전락산업부 장관으로 옮기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국장인 키릴로 부다노우(37)가 국방장관을 맡을 예정이다. 그는 인사가 언제 공식적으로 이뤄질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들도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이 텔레그램에 올린 글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 레즈니코우 장관은 우크라이나 군이 부족한 가격으로 식자재를 납품받았다는 부패 의혹이 제기돼 현지 언론의 공세에 시달렸다.

그는 장관 재임 동안 부패에 대해 '일종의 약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번 스캔들로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부패 추문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중 한 명이 해고됐고, 이후 다른 두 명의 고위 관리도 자리를 떠났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지사, 차관 및 기타 공무원을 퇴출하는 인사 개편에 착수했다.

부다노우 국방장관 내정자는 러시아 침공 전부터 여러 기밀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주요 정보국을 이끌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출신으로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 시작 몇 달 전인 2021년 11월 국방장관이 된 레즈니코우 장관은 별

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사실상' 통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그는 국방 관련 서방 인사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러시아 침공을 막는데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받는 데 공을 세웠다.

한편 레즈니코우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 러시아의 공세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반부패 부서가 할 일을 하지 않아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Value No.1**  
**Clean Energy Company**  
**for Better World**

국내 최초의 민간발전회사 **GS EPS**  
**스마트 발전소와 친환경 에너지로**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듭니다.**

www.gseps.com